

경기 구리시 아천동

# 한소희 '경성크리쳐'서 탐욕스러운 괴물과 맞짱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소희(본명 이소희)는 20세 때 30만 원을 들고 상경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비를 충당했다. 힘든 삶을 살았던 그는 매체 인터뷰에서 "매일 눈을 뜨면 강남의 한 호프집으로 출근해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일했던 제가 견뎌왔기에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싶다"고 우여곡절을 떠올렸다.

미술 공부와 모델 활동을 병행하다가 2016년 보이그룹 사이니의 뮤직비디오 'Tell Me What To Do'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가죽 재킷을 입고 시크한 눈빛과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눈길을 끌었고 짧은 등장에도 도발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사이니 멤버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는 평을 받았다.

이후 2016년 CJ의 '그곳에 가만' CF에 출연하며 연기에 재미를 느껴 배우 길을 본격적으로 걸었다. 드라마 데뷔작은 2017년 SBS 드라마 스페셜 '다시 만난 세계'다. 성혜성(여진구 분)의 동생 성영준(윤선우



빌라드그리움W

분)의 약혼녀이자 병원의 딸 이서원 역을 맡아 화려하고 굴곡 없는 인생을 이질감 없이 소화했다.

2017년에는 MBC 드라마 '돈꽃'에서 청아 그룹 재벌3세 장부천(장승조 분)의 내연녀 윤서원 역을 맡아 강렬하고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대세 배우로 자리 잡았다.

이외에도 tvN '백일의 낭군님', KBS2 '옥란면옥', tvN '어비스' 등에서 조연으로 활약했으며 2020년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여다경 역을 맡아 주연으로 시청자의 눈도장을 찍었다. 약녀이자 불륜녀

캐릭터를 찰떡같이 소화해 스타덤에 올랐다. 그해 열린 제56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신인상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배우부문 신인상을 받았다.

이후 2021년 인기 웹툰을 드라마화한 JTBC '알고있지만'의 주인공 유나비 역을 거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마이 네임'에서 주인공 윤지우와 오혜진 역 두 인물을 연기해 전작과 180도 다른 액션연기로 극을 이끌었다.

2021, 2022년 '마이 네임' '알고있지만' 각각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배우부문 베스트 아티스트상을 받았다. 그중 '알고있지만' 시청률은 부진했지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는 화제의 드라마로 높은 순위에 오르며 10~2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배우의 길에서 탄탄대로를 걸어나 한소희는 광고업계로부터 러브콜을 받으며 패

션뷰티금융 및 중고차 거래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의 광고 모델로 발탁돼 인기를 증명했다.

또한 지난해 3월 한국인 최초로 럭셔리 브랜드 '발렌시아가'의 엠베서더로 선정된 데 이어 이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3 크리에이티브 하이주얼리 컬렉션, 까르뜨 블랑슈(Carte Blanche) 론칭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해 부세론의 글로벌 엠베서더로 뽑혔다.

부세론은 배우로서 혹은 개인적으로 늘 독창적이면서 대담하고 스타일리쉬한 모습을 선보이는 한소희가 부세론이 추구하는 자유로운 가치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한소희는 "특별한 유산과 독창적인 존재감을 가진 하이주얼리 메종 부세론의 글로벌 엠베서더가 된 것이 매우 영광스럽다"며 "향후 부세론과 함께하게 될 새로운 작업들이 벌써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



한소희 배우

연합뉴스

했다.

또 14일 공개한 방탄소년단 정국의 솔로 데뷔곡 'Seven(세븐)' 뮤직비디오에도 참여했다. 이 뮤직비디오는 아틀 만에 5000만 회를 넘기며 뜨거운 인기와 화제성을 입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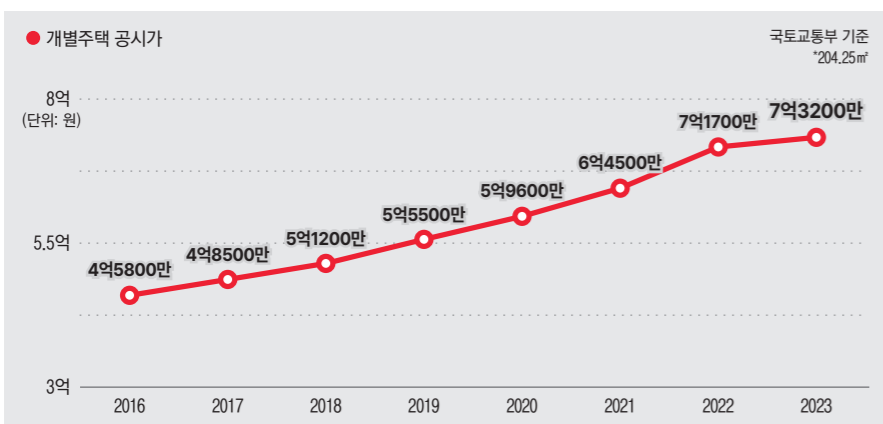
올해 하반기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경성 크리쳐'로 시청자와 만난다. '경성 크리쳐'는 시대의 어둠이 가장 짙었던 1945년 봄, 생존이 전부였던 두 청춘이 탐욕 위에

탄생한 괴물과 맞서는 크리쳐 스릴러다. 이 작품에서 그는 실종된 사람을 찾는 게 일인 윤채옥 역을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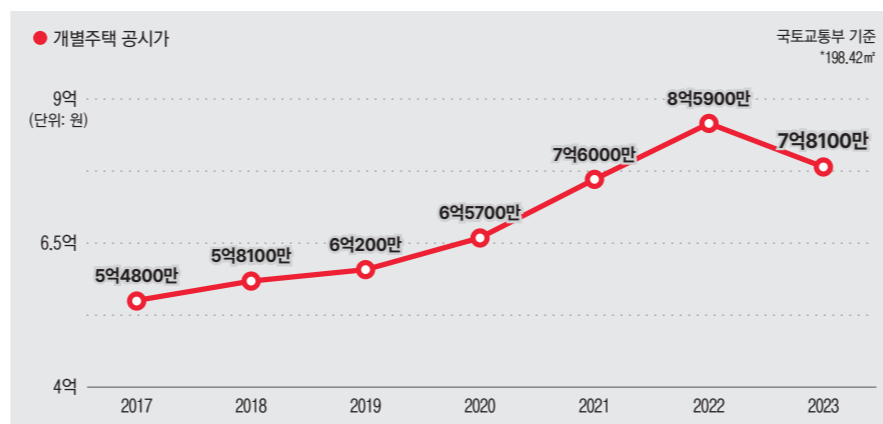
한편 한소희는 2021년 12월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소재 빌라드그리움W 한 호실을 매입해 소유 중이다. 전용면적 155.67㎡(약 47.09평) 규모로 19억5000만 원에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해 높은 인기로 걸맞은 재력을 입증했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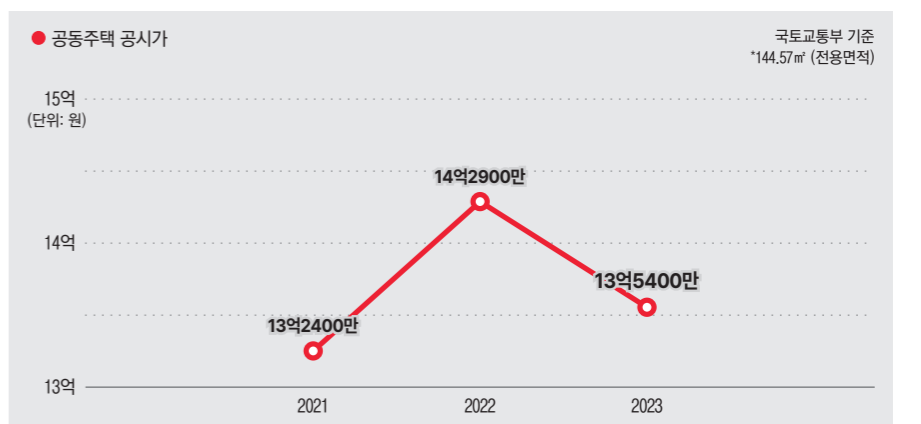
###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빌라드그리움W



### 호원숙

헌작가



1954년 서울에서 태어난 호원숙 작가는 소설가 박완서와 아버지 호영진의 장녀다. 경기여고를 나와 서울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했다. 뿌리 깊은 나무 편집 기자로 일하다가 첫아이를 가진 뒤 전업주부로 살았다. 이후 1992년 박완서 문학앨범에 일대기 '행복한 예술가의 초상'을 통해 글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 저서는 '엄마는 아직도 여전히' '그리운 곳이 생겼다' '큰 나무 사이로 걸어가니 내 키가 컸다' '달 쓰는 노년은 아름답다' '정확하고 완전한 사랑의 기억' 등이 있다. 모교인 경기여고의 경문박물관 운영 위원으로도 활동했던 그는 2011년 어머니의 타계 후 아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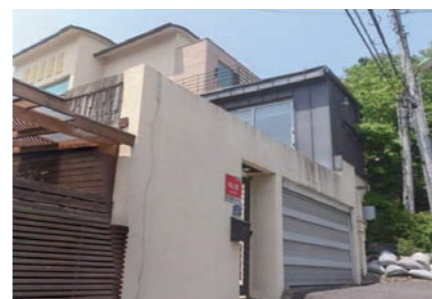
에 머물며 '박완서 소설 전집'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 등을 출간하는 데 관여했고 박완서 대담집 '우리가 참 아끼던 사랑' '박완서의 말' 등을 엮었다. 지난해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어머니와 관련된 일화를 털어놓아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 이재호

전 CJ제일제당 경영지원총괄 부사장은 이재호 전 CJ제일제당 경영지원총괄 부사장은 부산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부터 CJ 재무팀, CJ프레시웨이 경영지원총괄을 거쳐 CJ제일제당 전략지원실 실장과 소재사업부문 부사장, CJ 대외협력 단 단장 등을 지냈다. 2011년 소재사업부문 부사장 재임 시절 설탕부문을 이끌며 "코코넛 껍질에서 얻은 자일로스로 만든 '자일로스 설탕'으로 그동안 설탕 섭취를 줄여 오던 소비 트렌드를 확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1953년 국내 최초의 설탕 제조로 시작한 CJ제일제당이 신개념 설탕으로 국내 시장은 물론 세계 식품시장까지 공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06년부터



자일로스 연구에 착수한 뒤 2011년 내놓은 '백설 자일로스 설탕'은 열대 과일인 코코넛에서 얻은 자일로스와 설탕을 섞어 만들어 설탕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줄여주는 획기적인 개념으로 현재까지도 애용되고 있다.



### 문희준

헌가수



문희준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부모님의 사업 부도로 여동생과 함께 외삼촌 집에서 지냈고 부모님은 단칸방에서 지냈다. 평소 춤을 좋아해 고등학교 때 댄스팀을 꾸려 학교 축제에 공연을 다녔고 춤을 출 때면 항상 노란 바지를 입어 '송과구 노란바지'라는 별명을 얻었다. 서울예술대 방송연예과와 경기대 다중매체영상학과를 졸업한 뒤 재능을 눈여겨본 SM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을 제안받아 직접 창작한 곡과 댄스를 선보이며 합격했다. 1996년 출범한 5인조 아이돌 그룹 'H.O.T.'는 1집 앨범 'We Hate All Kinds Of Violence'로 데뷔해 '전사의 후예' '캔

다' '행복' '빛'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1996년 대한민국 영상음반대상 골든디스크 부문 SKC 신인상 수상을 시작으로 해체 직전인 2000년까지 지상파 방송 3사와 음악전문 채널이 주관하는 각종 음악상을 휩쓸었다.



##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 마장동 382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260가구 친환경 주거단지로 변신

#### 서울성동구

서울시는 '마장동 382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급경사지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에서 소외됐던 저층주거지가 편리한 기반시설을 갖춘 친환경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마장동 382일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 지역 일대는구릉지 특성을 반영한 살기 좋은 친환경 주거단지(1만 7959㎡, 24층 내외)와 260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대상지와 사근동 293일대 재개발, 마장세립아파트 재건축사업, 한양대 제2캠퍼스 개발 등을 연계하고 진입도로 및 보행로를 일괄 정비해 가로와 외부공간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했다.

특히 작년 말 대상지 동측 사근동 293일대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북쪽 살곶이2길을 사근동 11나길과 연결해 확대함으로써 마장역세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경관계획도.

서울시

권부터 정계천까지 이어지는 지역 주민의 생활 공유 가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와 성동구는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소해 구역경계 조정 및 대토부지 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의견조율도 진행하고 있다.

전체 구역 면적의 29%가 한양대 소유로

지, 6.8%가 종교시설로 아파트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공동주택지구 정형화를 위한 토지정리가 필수적이다. 가파른 경사지인 대상지는 지형의 고저차가 35m에 달하며 한양대 입야를 등진 남포북저형의 대지로 일조와 건축 배치에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 이에 높이규제 완화(2중7층 → 24층 내외) 및 지형의 단차

를 적극 활용한 계획을 통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2종일반주거지역 24층 내외로 완화해 동 간 거리를 넓혀 살곶이2길변에서 한양대 입야 방향으로 열린 통경축을 확보하고 지형의 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해 효율적 건축을 도모한다.

또 아파트단지 개발로 기존 보행 동선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양대 산책로와 단지 내 보행 동선-마장역세권-정계천까지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보행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입야시 양호하고 생태가 잘 보존돼 주민의 산책로로 애용되는 한양대 제2캠퍼스 내 녹지보존구역(대상지 남측)과 보행동선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장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역차원의 기반시설 정비·복합한 이해관계 조정 등이 가능해졌고 앞으로 개발 소외지역 지원을 위한 공공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 성거일반산업단지 부분 준공 인가

#### 충남 천안시

천안시는 성거일반산업단지 부분 준공 인가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성거산업사업단은 '천안성거일반산업단지' 1공구 준공 승인을 시에 신청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합동 준공 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후 관계 기관·부서 협의 의견에 따른 조치 결과와

실시계획 승인내용 시행 여부를 확인해 단지 내 보행 동선-마장역세권-정계천까지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보행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입야시 양호하고 생태가 잘 보존돼 주민의 산책로로 애용되는 한양대 제2캠퍼스 내 녹지보존구역(대상지 남측)과 보행동선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장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역차원의 기반시설 정비·복합한 이해관계 조정 등이 가능해졌고 앞으로 개발 소외지역 지원을 위한 공공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현제 성거일반산업단지에는 28개 기업이 입주해 산업시설용지 분양이 100% 완료됐으며 이 중 13개 기업은 공장을 착공



성거일반산업단지 전경.

천안시

했고 3개 기업은 이미 임시사용승인을 득해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천안성거일반산업단지 1공구 부분 준공으로 천안 북부지역 내 본격적인 기업활동과 더불어 1157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며 "이번 사업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중장기적인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9년 5월 산업단지계획이 접수돼 총 사업 기간 50개월과 사업비 78억 원이 소요됐으며 산업용지 분양률 100%로 성공리에 사업이 마무리됐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